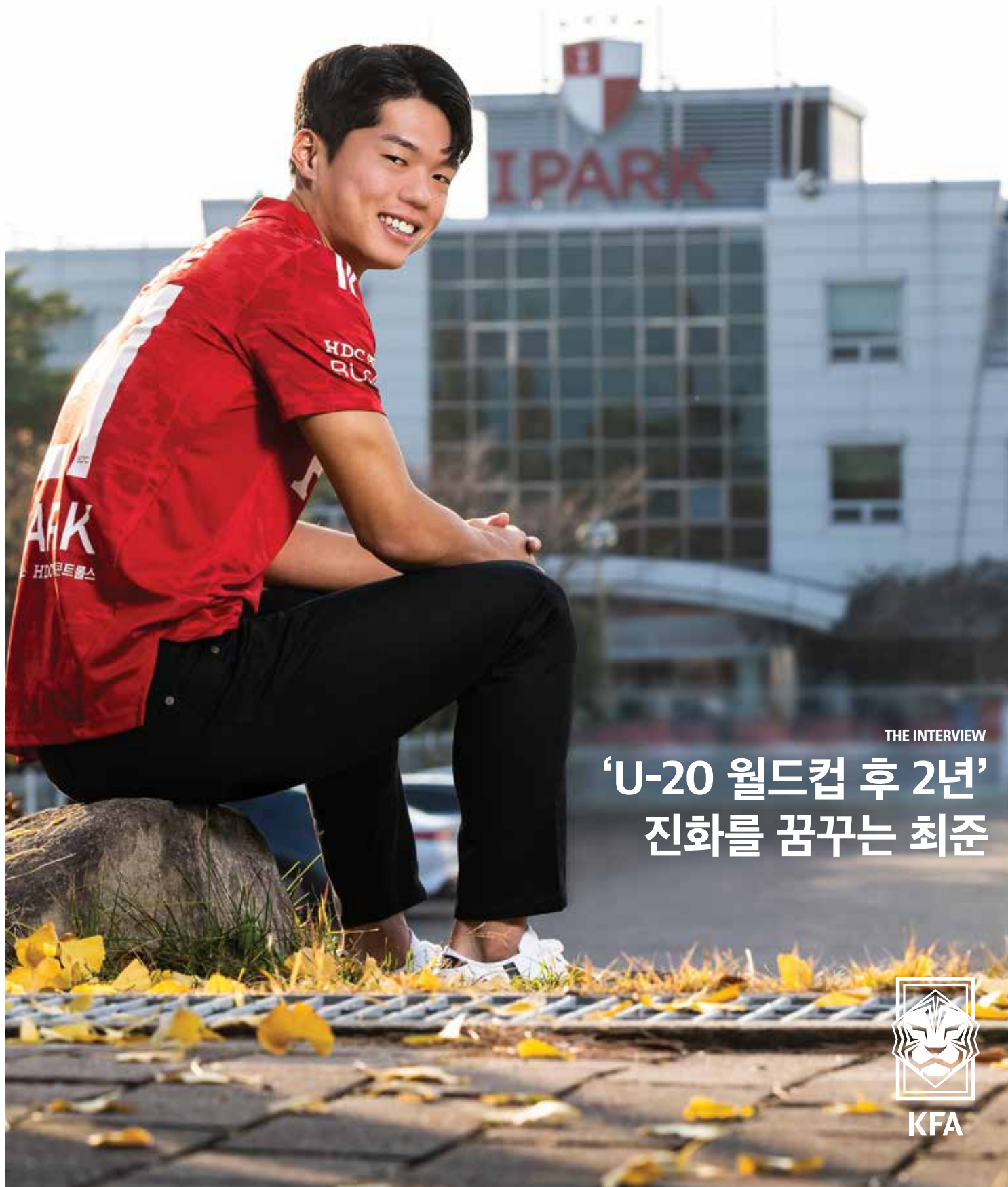


ONside

KOREA FOOTBALL ASSOCIATION TECHNICAL REPORT

www.kfa.or.kr

2021
12
VOL 91



THE INTERVIEW

‘U-20 월드컵 후 2년’ 진화를 꿈꾸는 최준



KFA



10년 전 그때처럼!

손흥민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손흥민은 카타르 도하의 타니빈자심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에서 자신의 A매치 30호골을 성공시키며 3-0 승리를 이끌었다. 2011년 같은 경기장에서 만 19세의 나이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이날 골을 넣은 뒤 당시 했던 ‘하트 세리머니’를 펼쳤다.

2021년 11월 17일 카타르 타니빈자심스타디움 /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6차전 / 대한민국 vs 이라크

이 코너는 KFA 임원진이 유소년 지도자 및 선수를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이야기라도 진심이 담긴 한 마디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12월호에는 올해 초 새롭게 부임한 서동원 의무위원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KFA와 같이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KFA 의무위원장으로 취임한 서동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선수가 되고 싶을 만큼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 반대항 축구대회에 출전했다가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스포츠 손상에 대한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야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의사로서 트레이닝을 마친 후 40세가 다 돼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뒤에도 저는 지역 의사들로 구성된 축구팀 선수로 활동했고, 병원 개업과 동시에 병원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축구팀 지원 및 유소년 전문 선수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것이 KFA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부상 경험으로 인해 저는 축구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골격질환과 스포츠 손상을 다루는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했고, 운동선수의 부상 치료 및 회복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의무분과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축구대표팀이 내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선수단 의무지원과 관련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팀이 요청하는 의무지원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의무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대표팀 선수들이 큰 부상이나 감염 질환 없이 월드컵 최종예선과 본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회별로 참가하는 팀닥터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표준화해 추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선수와 코치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의학 교육 지원도 하고 싶은 일입니다. 손흥민의 성장 스토리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버지의 관리 속에 유소년 시절부터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고, 피지컬을 잘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소년 때부터 부상 방지와 성장에 필요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과학적으로 배우고, 좋은 식습관으로 피지컬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스포츠의학, 스포츠과학, 정신건강의학, 영양학 전문가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축구의 미래인 유소년 선수들이 육체 및 정신적인 건강관리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KFA와 같이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KFA 의무위원장 **서동원**



1108 KFA, 쿠팡플레이와 공식 파트너 조인식

KFA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쿠팡플레이와 공식 파트너 조인식을 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쿠팡플레이는 KFA와 축구대표팀의 파트너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고, 대표팀 경기의 A보드 광고권 등 협회 주최 각종 행사에서 자사를 광고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국가대표팀과 대표선수들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노출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쿠팡플레이와의 계약기간은 2025년 8월까지 약 4년간이다.



1119 인천현대제철, WK리그 통합 9연패 달성

인천현대제철이 19일 인천남동구장에서 열린 한화생명 2021 WK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경주한수원에 1-0 승리, 1·2차전 합계 2-1로 정상에 섰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2013년부터 정규리그 1위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9년 연속으로 이뤄냈다. 이번 시즌 현대제철을 이끈 김은숙 감독대행은 WK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이끈 첫 여성 사령탑이 됐다.



1109 여자 U-20 대표팀 사령탑에 황인선 선임

여자 U-20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에 황인선(45) 현 여자 국가대표팀 코치가 선임됐다. 각급 대표팀에 여자 감독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례정보산업고와 울산과학대, 인천현대제철, 서울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한 황인선 감독은 2003 FIFA 미국 여자 월드컵에 참가하는 등 10년간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지도자로는 2007년 서울시청 코치를 시작으로 여자 연령별 대표팀 코치와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대행 및 코치를 맡은 바 있다.



1120 전주대, '3수' 끝에 U리그 왕중왕전 우승

정진혁 감독이 이끄는 전주대가 20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열린 동의대와의 2021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전주대는 1-1로 맞선 연장 전반 10분 터진 장승현의 결승골을 잘 지켜 우승을 따냈다. 지난 2009년과 2017년 왕중왕전 결승에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쳤던 전주대는 이번 우승으로 그동안의 한을 풀어냈다.



1121 수원시티FC, K5리그 챔피언십 첫 우승

수원시티FC가 2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1 K5리그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진섭의 멀티골에 힘입어 재믹스축구클럽(이하 재믹스)을 2-1로 이기고 처음으로 우승했다. 2017년 창단한 수원시티는 수원공고 출신의 김운현 감독이 수원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해 쾌거를 이뤄냈다. 반면 2019년과 지난해 모두 결승에서 SMC엔지니어링에 패하며 분루를 삼켰던 재믹스는 이번에도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으며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1127 김포FC, 창단 후 첫 K3리그 우승

고정운 감독이 이끄는 김포FC가 27일 열린 천안시축구단과의 2021 K3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2-2로 비겨 1·2차전 합계 3-2로 우승했다. 한편 K3리그 최하위(15위) 평택시티즌FC는 내년 시즌 K4리그로 강등된다. K4리그 1, 2위를 차지한 포천과 시흥이 내년 시즌 K3리그로 승격한다. K4리그 승격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당진은 김포FC의 K리그2 진출이 확정될 경우 승강결정전 없이 승격하게 된다.

CONTENTS

6 SKILL

발리슛, 이것만은 기억하자

10 THE INTERVIEW 1

‘K리그 302경기 출전’ 최재수
심판으로 연 제2의 인생

14 TACTICAL ANALYSIS

김기동의 ‘포지션 체인지’ 노림수,
알힐랄의 높은 벽에 막히다

16 THE INTERVIEW 2

‘U-20 월드컵 후 2년’
최준의 진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20 LOCAL CLUB EPISODE

강철FC, 축구로 고향을 생각하다

24 FOOTBALL TREND

‘모두의 게임을 꿈꾼다’
월드컵 격년제의 취지와 철학

26 LEADERSHIP

고등학교 감독에게 필요한
‘선수의 성인 무대 적응 돕기’

30 Q&A

심판강사에게 물어보세요.

31 FOOTBALL TRIVIA

기회는 있다

ONside

2021 DECEMBER VOL. 91

발행인 정몽규
편집 및 인쇄 (주)스토리하우스
발행처 KFA 대한축구협회
02-2002-0707



2021년 12월호 표지 모델
최준(부산아이파크)
사진 권동혁

ONside 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 바른 위치라는 의미로 오프사이드의 반대말입니다. KFA와 한국 축구도 반칙 없이 바른 위치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활약하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구 기술 향상과 정보 제공, 선진 축구 문화 형성을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KSPo 의 재정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발리슛, 이것만은 기억하자

프로 선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기술에 감탄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손승준 KFA 전임지도자와 함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지난 11월 7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36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 광주FC의 경기를 돌아보자. 후반 43분 0-2로 뒤지던 홈팀 포항이 만회골을 터트렸다. 신광훈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는 광주 수비수의 헤더에 막혔지만 공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아크 근처에 있던 강상우는 바운드된 볼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기막힌 발리슛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Who 강상우

When 후반 43분 0-2 상황

Where 페널티에어리어 안 골문 정면

What 발리슛

Why

발리(volley)는 공이 땅에 닿기 전에 되받는 것을 뜻한다. 축구에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되받아차는 것을 발리라고 하듯, 테니스에서도 공이 땅에 튕기기 전에 되받아쳐 넘기는 기술을 발리라고 한다. 공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 스포츠인 배구를 발리볼(volleyball)이라 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발리슛은 공중에 있는 공을 참으로써 다른 슛에 비해 강력한 힘을 지닌다. 땅에 있는 공을 차는 것에 비해 발과 공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슛의 파워가 강해진다. 정확한 임팩트가 이뤄지면 공이 빠르고 무겁게 날아가기 때문에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렵다. 상대보다 한시라도 빠르게 공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강점이다.

강상우의 골은 발리슛의 표본과도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자세와 정확한 임팩트로 만들어낸 골이다. 지름 22cm의 축구공을 발로 차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공이 공중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발에 맞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클레이 사격처럼 멀리서 이동하는 물체를 맞히는 것은 물체의 속력과 이동경로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자신을 향해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맞히는 것은 어렵다. 다른 선수들로 인해 공의 궤적이 가려지는 경우는 더 어렵다.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축구팬들의 뇌리에 깊게 박힌 멋진 발리슛으로는 2001/2002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레알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이 선보인 발리슛, 2004년 한국과 독일의 친선경기에서 이동국이 선보인 발리슛이 대표적이다. 이동국은 한국 축구팬들로부터 '발리 장인'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발리슛과 이를 통한 골을 선보였는데, 발리슛은 반복적인 훈련 없이는 실전에서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 전북현대에서 함께 뛴 당시 이동국은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크로스와 발리슛의 합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다.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본인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크로스 목표지점과 타임을 주문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동국은 이에 따른 골을 많이 넣었다.

How

좋은 발리슛을 위해서는 임팩트가 중요하다. 공을 끝까지 보고 타이밍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야 한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발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동료가 손으로 던져준 공을 (논스톱 또는 바운드 후) 공중에서 발에 맞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동료가 킥한 공을 발리슛으로 연결해보자.

실전에서는 위치 선정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때는 동료와 미리 약속된 플레이가 이뤄져야 한다. 골문이 보이지 않는 위치나 자세이더라도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골문의 위치를 파악하면 된다. 시선은 공을 향해 유지하고 골문 안으로 공을 넣는 것에 집중해 슛을 해야 한다. 유효슈팅을 위해서는 골키퍼를 향해 슈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TIP 01

-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공은 기본적으로 공이 최대한 땅에 가까이 왔을 때를 기다려서 슛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 공의 중심 또는 조금 위를 임팩트 해야 공이 위로 뜨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발목을 펴 발등의 넓은 면적으로 임팩트 할 수 있도록 한다.

volley shoot



TIP 02

- 옆에서 날아오는 공 또는 높이 튀어 오르는 공은 그만큼 발을 높이 들어야 하는데(공의 중심 또는 조금 위를 임팩트 해야 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공과 비슷한 선상에 놓이도록 눕혀야 한다. 태권도 옆차기 자세를 생각해보자.
- 힘을 쥐 세게 차려고 하기 보다는 정확한 임팩트에 초점을 맞춘다.
- 공이 더 높게 올 경우에는 머리카락이나 가슴으로 컨트롤한 후에 발리슛으로 연결할 수 있다.

‘K리그 302경기 출전’ 최재수 심판으로 연 제2의 인생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했어요.” K리그를 300경기 이상 누빈 베테랑 최재수(38)가 심판이 됐다. 빠른 발과 정확한 크로스가 돋보이는 풀백이었던 그가 심판으로 변신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4년 FC서울에서 프로 데뷔한 최재수는 울산현대, 수원삼성, 포항스틸러스, 전북현대 등을 거쳐 2019년 경남FC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까지 K리그 302경기에 나서 11골 37도움을 기록한 ‘성실의 아이콘’이다.

측면 수비수임에도 오버래핑과 크로스 능력이 뛰어나 공격 가담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2006년 컵대회 우승(FC서울)을 시작으로 2011년 컵대회 우승(울산현대), 201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전북현대), 2017년 K리그 챌린지 우승(경남FC) 등 다수의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K리그 챌린지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돼 기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국가대표(2경기) 경력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던 최재수였지만 2019년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많은 팬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2021년 11월 서울축구회관에서 <ON-SIDE>와 마주 앉은 최재수는 지난 5월부터 3급 심판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축구 무대를 누비고 있었다.

운명처럼 다가온 심판

최재수는 사실 2019년 이후 선수 생활을 더 이상어나가고 싶어 했다. 아직 그라운드를 향한 미련을 버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못했다. 데뷔 후 부상과 같은 변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경기에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음에도 그의 나이는 새 팀을 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했

다. 2020년 초에 터진 코로나19도 악재로 다가왔다.

“아직 정식으로 은퇴식을 하지 않았어요. 은퇴나 다름이 없지만 공식적으로 은퇴라고 말하긴 애매하기도 해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 팀을 찾아보려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뛰고 싶었죠. 그래서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다가 심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재수는 선수로 뛰고 있던 2017년 선수 출신 심판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은퇴 후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은 아니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선수로 뛴 때 심판분들과 부딪힐 일이 많았거든요(웃음). 그래서 심판 교육에 한 번 참가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웃인데, 왜 심판분들은 아웃이 아니라고 하지?’라는 호기심은 선수라면 한 번쯤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교육이 좋은 기회가 됐죠.”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선수가 보는 시각이랑 심판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됐고요. 무엇보다 심판들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제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참가했던 심판 교육이 최재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심판 도전을 결심한 이후 차근차근 준비해갔다. “심판 교육 당시 1주일 정도 합숙을 했어요. 체력 테스트와 각종 수업을 연달아 소화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죠. 다행히 제일 중요한 체력 테스트는 자신이 있었어요. 무사히 통과해 3급 심판이 됐죠.”

결코 쉽지 않은 도전

올해 5월부터 부산지역 3급 심판으로 활동을 시작한 최재수는 중학교 주 부심, 고등학교 부심을 보고 있다. “심판 임용 후 쪽 부심을 보다가 제 생일 전날에 있었던 중등리그 경기를 통해 처음으로 주심을 봤어요. 당시에는 정말 긴

장이 돼서 아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웃음). 엘로카드를 줄 때도 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헛갈릴 정도였죠.”

“심판으로서의 제스처도 그렇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지역 심판 선배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심판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수밖에 없는 직종이다. 프로 선수 출신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최재수는 오히려 즐기려고 했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 선수나 심판 모두 축구라는 범주 안에서 같은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파울과 같은 세세한 면을 잡아내야 할 때는 선수 출신인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두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심판으로서의 마인드를 장착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있었죠. 옆에서 심판 선배들이 도와준 덕분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경기에 심판으로 출전하면서 최재수는 선수 시절에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리스펙트(Respect, 존중) 정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판정에 문제가 없었

음에도 간혹 지도자분들의 항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엔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경험이 쌓였으니 저도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죠.”

“처음에는 심판을 쉽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잘해도 못해도 욕을 먹을 수 있기에 매사 신중해져야 하는데, 심판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최재수는 3급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평일에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이곳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그는 폭넓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선수 생활을 정리한 이후 여러 방면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심판도 그중 하나였는데 사실 계속 공부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어요. 체육교육을 전공하게 되면 교사로서의 가능성도 열 수 있고, 혹시나 나중



02



03

01 ‘아는 만큼 보인다’의 힘을 믿는 최재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

02 프로 마지막 커리어였던 경남FC에서의 최재수

03 최재수는 심판이 되면서 리스펙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에 지도자를 하게 되어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선수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배움의 즐거움은 최재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대학원 발표를 위해 직접 PPT로 자료를 만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막상 발표를 너무 못하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담당 교수님한테 발표를 너무 못해서 안타깝다고 이메일을 보낸 적도 있어요. 아내에게 ‘나 도저히 못하겠단다’고 투정 부린 적도 있죠. 그러면 ‘처음엔 다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주더라고요(웃음).”

최재수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의 멘토나 다름없는 한웅수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가 해준 말이기도 하다. “한웅수 부총재님은 평소 ‘네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믿고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준 아내의 응원도 빼놓을 수 없다. “선수 생활을 마친 후 진로를 정해

야 할 때 아내가 옆에서 큰 힘이 됐어요. 공부든 심판이든 지도자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한다고 응원해줬죠. 지금 아니면 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좋은 멘토가 옆에 있다는 것이 제게는 정말 다행이에요.”

후배들이여, 치열하게 부딪혀라

최재수는 심판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수원삼성과 FC서울의 ‘슈퍼매치’, 울산현대와 포항스틸러스의 ‘동해안 дер비’,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현대가 дер비’에서 심판을 보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다섯 팀은 최재수가 선수 시절 몸담았던 팀이기도 하다. 자신이 선수로 뛰었던 클럽의 경기에서 심판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일 수밖에 없다.

“심판으로서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프로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선수 시절 거쳤던 팀들이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라이벌전에 제가 심판으로 투입된다면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때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라운드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난 이후 한

동안 축구를 외면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최재수에게 심판이라는 직종은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보내는 순간이 예전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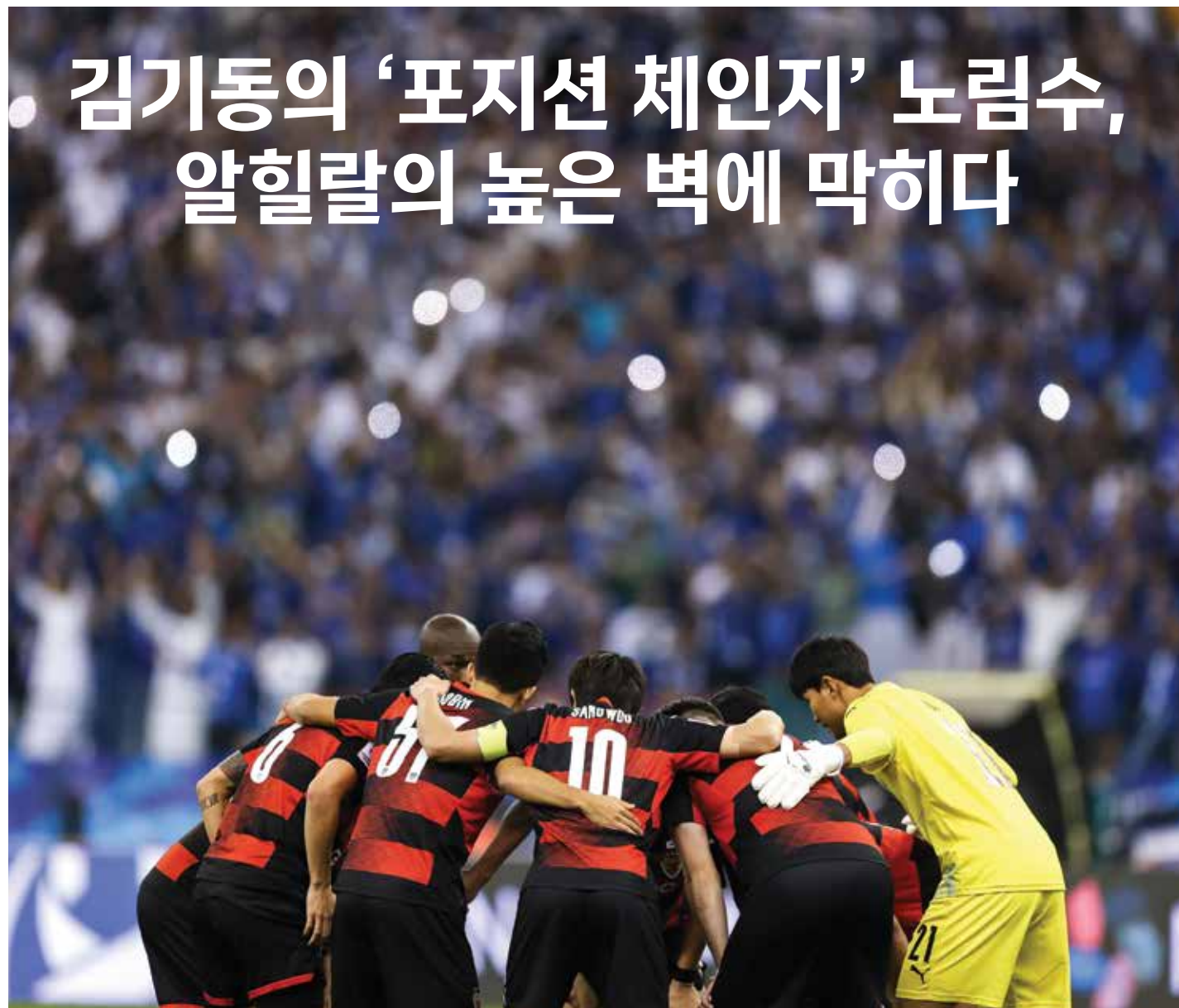
“선수 생활을 정리한 후 그동안 어디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많이 알리진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 다니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도 그렇고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가능성을 넓혀가고 싶어요. 최근에는 풋살 강습회를 들으면서 풋살에도 관심이 생겨서 (풋살 선수로) 뛰는 걸 고민 중입니다.”

“후배들이 은퇴 후 진로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들에게 과감하게 부딪혀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 해야지 미루다 보면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은 후회뿐이죠. 후회를 남기지 말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좌우명이 ‘하면 된다’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됩니다.” 



01

포항스틸러스의 기적이 결승전에서 멈춰 섰다. 포항은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의 2021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0-2로 패했다. 김기동 포항 감독은 포지션 체인지와 경기 중 전술 변화로 승리를 노렸으나 알힐랄의 두터운 선수층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김기동의 ‘포지션 체인지’ 노림수, 알힐랄의 높은 벽에 막히다

기민한 전술 변화로도 뚫기 어려운 알힐랄 스쿼드

주축 선수의 부상과 이적으로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은 포항에게는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기적이었다. 결승 상대인 알힐랄과의 스쿼드 차이는 극심했다. 알힐랄은 프리미어리그 스완

지시티(현재는 챔피언십 소속)에서 기성용과 함께 뛰었던 바페팀비 고미스, FC포르투 출신 무사 마레가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들이 즐비했다.

포항은 얹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승모가 병역 관련 봉사활동시간 미달로 해외 출국이 불가능

해 이 경기에 합류하지 못했다. 결국 김기동 감독은 임시방편으로 선수들의 ‘포지션 체인지’를 통해 약점을 메우려 했다.

4-2-3-1로 나선 김 감독은 팔라시오스를 최전방 공격수로 올리는 극약 처방을 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신진호를 배치했다. 후방에

서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하는 신진호가 이승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 계단 위로 전진한 것이다. 신진호가 위로 올라오면서 비는 홀딩 미드필더 한 자리에는 신광훈이 포진했다. 신광훈은 간혹 미드필더를 맡긴 하지만 원래 자리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다.

포항은 알힐랄의 전방압박에 고전했다. 알힐랄은 내려서는 경우 없이 볼을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전방압박과 4-4-2 변형을 통해 포항의 1차 빌드업을 저지했다. 더군다나 전반 16초 만에 알힐랄의 중거리슛이 선제골로 연결되면서 포항의 계획은 꼬였다. 이후 알힐랄은 아무 두려움 없이 뒷선에서의 압박을 이어갔다.

개인적으로 전반을 보면서 ‘신진호가 밑으로 내려가서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수빈과 신광훈은 뭔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 특히 공격적인 볼 터치를 하지 못하고, 바디 포지션이 좋지 않아 좀처럼 볼이 전방으로 살아나오지 못했다. 김 감독의 포지션 체인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빌드업의 약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 감독의 후반 대응은 좋았다고 본다. 이수빈과 크베시치를 빼고, 전민광과 고영준을 투입하면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했다. 전민광

이 왼쪽 풀백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강상우가 반대편인 오른쪽 윙포워드로 올라갔다. 발 빠른 고영준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자리하면서 신진호는 원래 자리로 내려와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했다.

신진호를 통해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역시 김 감독의 보는 눈이 예리하다는 것을 느꼈다. 5만명이 넘는 관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점을 진단해 교체로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냉정함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자 포항의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났다. 만약 전반에 신진호가 크로스바를 때린 슈팅과 프리킥 상황에서 권완규의 헤더 중 하나라도 골로 연결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랬다면 후반 전술 변화를 통해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미스-마레가에겐 KO 펀치를 맞다

알힐랄의 두 번째 골은 선수 개인의 역량이 두드러진 장면이었다. 고미스의 침투 패스를 깔끔한 추가골로 연결한 마레가의 움직임이 탁월했다.

구슬 변성환(KFA 전임지도자) 정리 오명철 사진 FАphotos

왼쪽 수비수 전민광의 시야 밖에 서 있던 마레가는 고미스가 볼을 잡자 순식간에 전민광의 앞쪽으로 몸싸움을 하며 들어왔다. 순간적인 움직임을 통해 골문과 가까운 쪽 위치를 선점한 마레가는 그대로 볼을 달고 들어가 침착하게 슈팅을 성공시켰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볼을 받으려는 공격수는 수비 뒷공간으로 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레가는 포항의 센터백과 측면 수비수 사이 공간을 보고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그 공간을 선점해 골 찬스를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 전민광이 센터백 쪽으로 두세 발짝 접근하며 측면 패스를 유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랬다면 곧바로 슈팅 찬스를 주지 않고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전민광이 전문 측면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실수 아닌 실수’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선전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김기동 감독은 가용 자원 내에서 최선의 대응을 했고, 후반 전술 변화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내년에는 포항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ON**



‘U-20 월드컵 후 2년’ 최준의 진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험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최준(22, 부산아이파크)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이 열광했던 2019 FIFA U-20 월드컵 준우승 후 2년이 흐른 지금, 청소년 유망주에서 어엿한 프로 선수가 된 그는 이제 올림픽 출전을 꿈꾸고 있다.

최준은 빌드업과 킥 능력이 좋은 전천후 측면 수비수다. 현대고(울산현대 U-18) 시절까지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그는 연세대 진학 후 측면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자신의 장점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비수임에도 숨길 수 없는 공격 본능은 최준을 청소년 유망주로 만들었다. 덕분에 정정용 감독(현 서울이랜드FC)이 이끄는 2019 FIFA U-20 월드컵 대표에 선발돼 준우승이라는 영광을 맛보기도 했다. 특히 에콰도르와의 4강전에서 터뜨린 결승골은 온 국민이 최준이라는 축구 유망주를 명확히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U-20 월드컵 후 2년이 훌쩍 지났다. 최준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울산현대, 경남FC를 거쳐 올해 초 부산아이파크 유니폼을 입은 그는 페레스 감독의 전적인 신뢰를 얻으며 프로 안착에 성공했다. 리그 30경기 출전에 2골 4도움이라는 준수한 기록은 그를 '하나원큐 K리그2 2021 대상' 시상식에서 수비수 부문 베스트일레븐 수상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시동도 다시 걸었다. 최준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 소속으로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2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해 공수 양면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본업인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골과 도움에도 관여한 그는 다가올 항저우 아시안게임(2022)과 파리 올림픽(2024)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이 마무리됐어요.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난해보다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울산현대에 입단했을 때는 한 경기도 못 뛰어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거든요. 경남FC로 이적한 후 경기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프로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와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팀이 올해 K리그1 승격에 실패한 것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고 만족할 수는 없고 내년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하죠.

개인 성적(리그 30경기 출전 2골 4도움)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고 싶나요?

10점 만점에 6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사실 올해 여기로 오면서 목표를 잡은 건 공격포인트 10개였거든요. 6개밖에 못했으니 6점을 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최준



이제 조금씩 프로 무대에 자신감이 불기 시작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K리그2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 K리그1에서 뛰어본 적이 없잖아요. K리그1과 2는 객관적인 차이가 있어요. 간혹 K리그1에서 뛰게 되면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해요.

부산아이파크에서의 1년을 통해 느낀 점도 많았겠어요.

처음 이 팀에 왔을 때 페레즈 감독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진 것이 많은 선수’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측면 수비수로서 공격, 수비 능력을 모두 갖췄지만 선수로서 기복이 조금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왜?’라고 생각했죠. 하

지만 1년을 꾸준히 뛰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기복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실수도 훨씬 줄일 수 있었겠죠.

페레즈 감독의 스타일은 어떤가요?

보통 외국인 감독은 스타일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경남FC 시절 설기현 감독님도 유럽에서 뛴신 분이래 그런지 선수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페레즈 감독님은 아니에요. 생각과 달리 규율도 강하게 적용하시고 선도 확실히 그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인 이 팀에서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으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부산아이파크 팬들은 미국으로 진출한 김문환



올해 초 부산아이파크로 이적한 최준은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며 자신감을 얻고 있다.



하나원큐 K리그2 2021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일레븐 수비수 부문에 선정된 최준

의 대체자로 많은 기대감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김)문환이 형의 대체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에요. 대학 시절 부산 경기를 보면서 문환이 형의 활약을 자주 봤거든요. 공격과 수비가 모두 뛰어난 측면 수비수라 그저 부럽다는 생각만 했어요. 당시의 저는 공격만 할 줄 알고 수비는 잘하지 못했죠.

최근 U-23 아시안컵 예선을 다녀왔어요.

U-23 아시안컵 예선은 상대가 비교적 약체이긴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필리핀과의 첫 경기는 후반에 골이 터지면서 다소 힘들게 이겼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를 뛰면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탓에 몇 차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 만난 황선홍 감독은 어땠나요?

황선홍 감독님은 생각보다 엄청 유연한 스타일이세요.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대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셨죠. 또 전술을 설명할 때도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정확히 캐치해서 알려주셨어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죠. 무엇보다 공격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시다 보니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팀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분위기는 항상 신났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고 지냈는데 댄스 음악부터 발라드 음악까지 다양하게 나와 음악 덕분에 훈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대회 당시 싱가포르의 날씨가 좋지 않아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대표팀 경기를 뛰면서 2019년 U-20 월드컵 생각도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U-20 월드컵 시절엔 청소년 대표팀이었고 지금은 성인이잖아요. U-20 월드컵 때보다 못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 이를 악물고 뛰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나 파리 올림픽에 나갈 때까지 더 노력해야 해요. 청소년 대표팀 때 잘하고도 사라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지금도 당시 남자 U-20 대표팀 동료들과 연락을 하나요?

시즌 중에는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지는 못했어요. 서로 바쁘니까요. 하지만 휴가 때 서울에 가게 되면 시간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 밥을 먹은 적은 있어요.

월드컵 준우승의 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가끔 서울에 갈 때마다 서울광장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U-20 대표팀은 귀국 후 서울광장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가졌다). 친구랑 함께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환영 행사를 했던 곳’이라며 항상 이야기하죠.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 친구가 이제 제발 그만 좀 하래요(웃음). 그래도 저는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준우승을 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서울광장에서 저희를 향해 환호하는 많은 분들을 보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싶더라니까요.

U-20 대표팀의 최준은과 U-23 대표팀의 최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U-20 대표팀 시절에는 그저 감독님의 전술에 맞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뛰고 많이 뛰었으나 침착함은 다소 부족한 시기였죠. 그런데 프로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을 쌓다 보니 지금은 그때보다 침착함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전술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제가 주도해 움직이는 상황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가올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해요.

우선은 내년에도 소속팀에서 꾸준히 뛰어야 대표팀에 갈 수 있겠죠. 소속팀에서도 경쟁을 해야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출전을 향한 욕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제가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면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누구보다 노력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진 강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

서 평소 이용 선배(전북현대)와 김태환 선배(울산현대)의 플레이를 자주 챙겨봐요. 두 분의 크로스 스타일은 다르지만 제가 K리그에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측면 수비수인만큼 플레이 영상을 꼼꼼히 챙겨보려고 해요. 좋은 교과서나 마찬가지로라서요.

개인 운동을 할 때 (이)용이 형처럼 얼리크로스를 차보기도 하고 (김)태환이 형처럼 라인 끝까지 가서 찍어 넣기는 크로스를 해보기도 해요.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죠. 수비도 마찬가지로 지어요. 선배들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습득하는 것이 실제로 제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부산아이파크 선수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아쉽게 K리그1 승격에 실패했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래도 부산 팬분들은 항상 경기장을 찾아와 응원해주셨어요. 저희가 기대에 부응할 때도 있었고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팬분들은 똑같이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올해는 비교적 팀의 기복이 심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올해처럼 내년에도 기복이 심한 경기를 할 수도 있죠.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지금처럼 꾸준히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선수들 모두가 더욱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승격을 위해 저부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N**

PROFILE

생년월일 : 1999년 4월 17일
신체조건 : 177cm 72kg
포지션 : 측면 수비수
출신팀 : 현대고-연세대-울산현대-경남FC-부산아이파크

강철FC, 축구로 고향을 생각하다



강원철원군FC, 줄여서 강철FC다. 인구 4만5천 명의 북쪽 끝 지역에서도 축구는 펼쳐진다. 강철FC의 탄생과 성장은 그 때문이다.



LOCAL CLUB EPISODE

K5리그의 매운맛

강철FC는 올해 처음으로 K5리그를 경험했다. 지난해 K6 강원B권역 리그에서 5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하며 K5리그로 승격한 강철FC는 당연히 동호인 축구 최상위 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처음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강철FC는 2021 K5 강원권역 리그에서 5경기 1승 4패에 그치며 6개 팀 중 5위에 자리했다.

선수 겸 감독을 맡고 있는 김한샘 씨는 “이번 시즌은 어렵고 힘들었다. K6리그까지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했는데 K5리그는 확실히 수준이 높았다. 우리 팀은 30대 선수들이 많아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철FC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영월FC를 상대로 1승을 거두며 K5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김한샘 씨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팀원들과 이기든 지든 후회 없이 하자고 이야기했다. 다시 K6리그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우리 실력이 부족한 것이니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라오면 된다고, 마음 편하게 하자고 했다. 덕분에 즐기면서 경기를 했고 좋은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K5리그의 매운맛을 본 강철FC는 내년 시즌을 위해 마음을 다지고 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골을 기록하며 1승에 기여했던 김근도 씨는 “K5리그의 수준을 안 만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느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은 순위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샘 씨는 “젊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선수 보강을 할 생각”이라며 확실한 동기부여로 내년 시즌을 맞이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내 고향 철원

강철FC는 2015년 창단됐다. 시작은 강원도민체전 참가를 위해 철원군 동호인 축구팀들의 선수 출신들을 모은 프로젝트 팀이었다. 철원군의 정예 멤버가 모인 이 팀은 철원군 최초로 강원도민체전 첫 승을 거뒀고, 결승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이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모였던 프로젝트 팀이 강철FC라는 하나의 동호인 축구팀으로 태어났다. 김한샘 씨는 “강원도 철원군을 줄여서 강철이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투표를 통해 이름을 정했다. 강철의 강인함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한샘 씨는 강철FC 창단 이후 강철스포츠포아카데미를 창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강철FC U-12, 15, 18팀의 감독이기도 하다. 철원군에서 나고 자란 그는 강철FC가 하나의 클럽 시스템으로서 철원군에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김한샘 씨는 “철원군에는 엘리트 축구팀이 없다. 나 또한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생활을 해야 했다.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지역에 가지 못한 어린 친구들도 많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도 진입장벽에 막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원군 안에도 축구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총무를 맡고 있는 이정일 씨도 철원군이 고향이다. 그 또한 축구선수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다른 지역의 엘리트 축구팀에 들어가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했다. 철원군의 열악한 축구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철FC의 의지에 심분 공감한 이유다. 호남대 축구학과 졸업 후 현재 철원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이정일 씨는 “지금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 축구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강철FC와 강철스포츠아카데미는 철원군 밖으로 떠났던 철원군 출신들을 철원군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일자리를 위해 고향을 떠났던 선후배들이 다시 모여 축구를 즐기는 것은 물론 취업을 통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한샘 씨는 “철원군에서 좋은 선수가 배출되는 것도 물론 보람된 일이고, 이 선수들이 현역으로서 해볼 만큼 해본 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선수 출신인 김근도 씨는 대학교 3학년 때 독일로 축구유학을 다녀왔고, 이후에는 포천시민축구단에서 활약한 바 있다. 은퇴 후 고향에 돌아와 철원문화재단에서 근무 중인 그는 강철FC에서의 활동이 “잊고 있던 선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골이다 보니 다른 큰 도시로 나가는 선수 출신들이 많은데, 강철FC가 앞으로 쪽 이어진다면 그런 경우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팀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변화의 시기

바람대로 강철FC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동호인 축구팀으로서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올해 처음으로 K5리그에 참가하며 얻은 경험은 강철FC에 큰 자극이 됐다. 김한샘 씨는 “사실 K5리그로 승격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K5리그는 K6리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리그이기 때문에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했다”면서 “직접 부딪혀보고 결과가 나오니 가야할 방향을 알게 된 것 같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철FC의 구성원들은 큰 멤버 변화 없이 6년을 달려왔다. 창단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회원들은 30대가 됐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등 가정을 이룬 회원들이 대다수다. 자연스럽게 팀에 쏟는 관심과 에너지가 20대 때에 비해 줄어든 수밖에 없다. 45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선수 출신이긴 하나 리그를 치르는 동안 매 경기 최상의 전력으로 베스트일레븐을 꾸릴 수 없다. 각자의 삶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정일 씨는 “2015년에는 다들 혼자였던 친구들이 이제는 가정이 생겼다. 가족들끼리도 서로 왕래하며 서로의 자녀들이 친구가 될 만큼 두터운 인연이 됐다. 하지만 동시에 축구에 매진할 시간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창단 초기처럼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5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팀들이 선수 출신의 20대 선수들을 영입해 전력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기존 멤버를 고집하는 것으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 따랐다. 가뜰이나 군 단위 팀은 시·단위 팀보다 선수 수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한샘 씨는 “철원군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른다. 강원도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처지”라며 웃었다. 그런 팀이 도민체전과 디비전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성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반향이 된다. 강철FC가 K5리그에서 경쟁력을 이어나가고자 애쓰는 이유다. 이정일 씨는 “지금 딱 회원들의 자녀가 돌봄이 많이 필요한 때라 변화와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비전리그 참가는 그만큼 강철FC에 큰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김한샘 씨는 “K5리그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FA컵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가 FA컵에 참가해 프로팀과 한 경기라도 해보는 것은 우리가 디비전리그에 참가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큰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김한샘 씨는 “우리 팀의 자량은 많이 뛰는 것이다. 그것 밖에 자랑할 게 없다”면서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며 팀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강철FC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이 K5리그 지형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기대된다. 





‘모두의 게임을 꿈꾼다’ 월드컵 격년제의 취지와 철학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게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월드컵의 2년 주기 개최를 주장하며 내세운 말이다.

이 말에는 FIFA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철학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월드컵 격년제’가 축구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찬반 여론도 뜨겁다. “월드컵이라는 보석의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는 비판 여론부터 “더 많은 나라가 기회를 얻고, 선수들의 피로도도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다”며 옹호하는 이들도 제법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월드컵 격년제라는 화두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204개 FIFA 회원국 협회와 32명의 FIFA 평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축구의 미래’라는 의제 아래 월드컵 격년제를 포함해 국제 경기 일정의 변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의 여자축구와 남자축구 경기 일정은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만료된다.

FIFA가 대안으로 제시한 새로운 A매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남자축구의 경우, ▲2025년부터 홀수해 대륙컵, 짝수해 월드컵 개최(6월) ▲월드컵 및 대륙컵 본선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연간 1~2회의 A매치 소집(10월 혹은 10월/3월) ▲예선은 최대 7경기까지 실시로 요약된다.

여자축구도 남자축구와 기본 개념은 같다. 월드컵과 대륙컵을 2년 주기로 개최하며 이에 맞게 A매치 일정을 정비한다. 다만 여자축구는 남자축구와 달리 대륙별 상이한 예선 방식 및 실력의 격차, 적은 팀 수로 인한 경기 수 부족 등을

고려해 A매치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청소년축구는 현재 U-17 월드컵과 U-20 월드컵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U-17 월드컵은 매년, U-20 월드컵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U-17 월드컵을 없애고 U-16과 U-18 월드컵을 신설해 더 많은 팀들이 기회를 얻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제대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월드컵 격년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온 문제지만 번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 격년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FIFA 총회에서 월드컵 개최를 희망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협회장이 격년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했고, 166개국의 찬성(22개국 반대)으로 연구 조사가 시작됐다.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9월 화상회의에서 FIFA 글로벌 축구 발전 책임자인 아르센 벵거, FIFA 기술자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질 엘리스가 A매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A매치 친선경기는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유럽과 북중미는 현재 네이션스리그를 통해 자기 대륙의 팀들과 경기를 치른다. 나머지 국가 입장에서 유럽의 강팀과 친선경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결국

경기력 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FIFA는 모두에게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기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월드컵의 빈도를 높이고, 친선경기과 네이션스리그를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 경기력 측면에서 회원국들의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다.

FIFA가 제시한 대안에 따르면 남자축구의 월드컵 예선 경기 수는 10경기에서 최대 7경기(플레이오프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10월(혹은 10월과 3월)에 월드컵 및 대륙컵 예선을 몰아서 치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클럽 팀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팀을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FIFA는 월드컵과 대륙컵이 끝난 후 25일의 의무 휴식 기간을 도입해 선수들이 강한 경기를 치른 뒤 체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월드컵 격년제가 실시돼 A매치 친선경기가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협회 입장에서는 중계권 및 스폰서 수익 감소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FIFA 역시 이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FIFA는 각국 협회와의 양자 및 다자 미팅을 통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9월에 열린 월드컵 격년제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한 전한진 KFA 사무총장은 “지난 화상회의가 4시간 30분 가량 길게 진행됐는데 이는 FIFA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만큼 FIFA도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하며 회원국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개혁을 특정 렌즈로 보면 반대 입장을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드컵 격년제는 FIFA의 최고 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ON**



고등학교 감독에게 필요한 ‘선수의 성인 무대 적응 돕기’

요즘 고등학교 선수들은 졸업 후 프로 진출을 꿈꾸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일찍 성인 무대에 도전해 커리어를 쌓으려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K리그를 살펴봐도 엄지성(광주FC), 정상빈(수원삼성), 이한범(FC서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프로에 온 선수들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이들처럼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레벨과 성인 레벨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감독들은 할 일이 많다. 선수의 성장을 위해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 외적인 면에서도 손을 대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인 무대 적응의 우선 순위는 ‘체력’

우선은 체력 향상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인 무대로 바로 올라온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 대신 프로를 포함한 성인 무대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팀을 지도하는 감독들도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선수의 성인 무대 적응을 돕고 성공적인 유망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독이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



금호고 졸업 후 프로에 올라와 맹활약 중인 엄지성(광주FC)



점들 중 하나는 빠르고 힘이 넘치는 성인 축구에 적응하기 위한 체력을 갖추는 것이다.

엄지성, 허을 등을 키워낸 최수용 금호고 감독은 “프로 지도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갔을라온 선수들에게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체력적인 문제”라면서 “과연 이 선수가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체력과 근지구력을 갖췄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체력은 곧 피지컬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한창 자라는 나이인 만큼 근육의 형성은 강한 피지컬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성적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체력보다는 성적을 내기 위한 기술 향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수용 감독은 “요즘의 고등학교 선수들은 편하게 운동하면서 자신의 기술만을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 그것이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력 향상 훈련뿐만 아니라 식습관까지 세세하게 다듬어 근육을 발달시킨 뒤에 그걸 토대로 기술적인 요소들을 반복 훈련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를 키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체력 향상 훈련을 시킬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리한 체력 훈련은 성장하는 선수들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진행하는 체력 훈련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조재훈(포항스틸러스) 등을 육성한 이영진 용인시축구센터U18덕영 감독은 “체력은 분명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레벨의 선수들은 아직도 성장하는 선수들이다. 그렇기에 과도하게 체력 훈련을 시키면 부상이 뒤따를 수 있어 감독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술 훈련은 반복적으로, 멀티 포지션은 플러스

체력 다음에는 기술이다. 기술은 포지션별로 요구되는 점이 다르다. 선수가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고 있다면 반복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도 반복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영진 감독은 “선수의 장점을 파악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포지션마다

요구되는 기술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크로스, 스피드, 패스 등과 같은 것들은 프로에 올라가서도 쓸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대원(강원FC), 이한범 등을 키워낸 심덕보 보인고 감독도 “포지션별로 필요한 기술이 다르기에 선수의 장점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백인 (이)한범이의 경우에는 신체 조건이 좋았으며 영리한 플레이를 할 줄 알았기에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센터백의 기술들을 빨리 터득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만일 선수가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면 이는 성인 무대에서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포지션을 능수능란하게 넘나들 수 있다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수가 구사할 수 있는 기술적 옵션도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고등학교, 대학교 레벨에서는 특정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최수용 감독은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곧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을 잘한다는 것과 같다. 매번 똑같은 장면이 나올 수 없기에 상황에 맞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를 보면 공격에 나가서도 위치를 잘 찾고 수비를 할 때도 영리하게 움직인다. 멀티 포지션을 구사할 줄 알면 확실히 성인 무대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누구나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독은 선수의 특성을 고려해 멀티 플레이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골라내야 한다. 이영진 감독은 “고등학교 레벨의 감독들은 최소한 선수가 두 가지의 포지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선수에게 멀티 포지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를 골라내고 장점을 키워주는 것도 감독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한 멘탈,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

하지만 체력과 기술, 멀티 포지션을 모두 갖췄다 해도 프로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높지 않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지도자들은 프로를 포함한 성인 무대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경쟁에 익숙해지는 것과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입을 모았다. 모든 기능적 요소를 다 갖췄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에 익숙해지지 못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진출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축구선수들은 극히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매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감독들은 곧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제자들이 경쟁을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도록 꾸준히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축구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과 멘탈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평소 이 점을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심덕보 감독은 김대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심 감독은 “(김)대원이

가 프로(대구FC)에 올라간 직후부터 경기를 뒀 것이 아니었다. 사실 2년 차까지는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아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원은 강한 정신력으로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고 또 버텼다. 심덕보 감독은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생각에 경기에 뛰지 못해도 성실하게 몸 관리를 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았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한 정신력은 감독의 지도뿐만 아니라 선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영진 감독은 “(포항스틸러스에 간) (조)재훈이의 경우 드리블과 패스 능력이 좋고 턴이 유연하며 상황 인식 능력도 뛰어나지만 피지컬이 다소 약하다. 그래서 아직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선수들에게 평소 스스로 노력할 것을 꾸준히 강조했다. 이는 재훈이도 마찬가지다.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수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

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감독이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에만 시선이 쏠려 있는 선수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인 무대에는 프로뿐만 아니라 K3리그와 K4리그라는 수준 높은 세미프로리그가 존재한다. 실제로 박승욱(포항스틸러스)처럼 K3리그를 거쳐 프로에 진출해 활약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최수용 감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올라가면 누구나 급해질 수밖에 없다. 빨리 적응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 초조해질 것”이라면서 “(엄)지성이처럼 누구나 프로에 가서 바로 경기를 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감독이 직접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K3리그나 K4리그처럼 프로가 아닌 성인 무대에서 2년 정도 경험을 쌓고 프로에 올라오는 것을 권유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 01 근육 발달과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수용 금호고 감독
- 02 기술 향상은 반복 훈련으로 한다. 이영진 용인덕영 감독도 이 점에 중점을 둔다.
- 03 심덕보 보인고 감독은 강한 멘탈을 가져야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심판강사에게 물어보세요.

보고 또 봐도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축구 규칙이다. 선수와 지도자들의 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유병섭, 강창구 KFA 전임 심판강사에게 물었다.



강창구 심판강사

유병섭 심판강사

정리 권태정 사진 FАphotos

Q 1 최근 K리그 경기에서 스로인을 하는 선수가 원래 위치로부터 많이 벗어나 스로인을 했다는 이유로 주심이 스로인 권한을 상대 팀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스로인 위치를 많이 벗어나면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당초 위치로 가서 다시 스로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장면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스로인 위치 위반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스로인한 볼이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거나 그라운드에 닿지 않고, 다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심판 교육을 받을 때에만 해도 질문처럼 스로인의 다른 절차는 모두 갖춘 채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 제 위치에서 스로인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로인의 위치가 바뀌는 이유를 찾아보니, 상대 선수가 스로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스로인하는 선수의 몸에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난 규정이 바로 상대 선수는 스로인하는 선수로부터 2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형태로 2005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로인하는 선수가 정확한 위치가 아니어도 상대 선수는 2m 떨어져야 하는 불완전한 규정이었지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스로인 지점을 위반한 것도 절차의 위반으로 여겨 상대팀에게 스로인 권한을 넘기고, 상대 선수는 스로인 지점에서 2m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하지요. 스로인하는 선수가 터치라인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스로인을 할 경우 상대 선수는 터치 라인에서 1m만 떨어져도 2m 떨어진 것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스로인을 하는 터치 라인의 지점에서’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로인 위치에 대한 문제는 ‘2m’와 연관이 큼니다. 위의 여러 사항을 고려한 결과로 스로인 위치 위반 시 스로인 권한을 상대에게 넘겨

주도록 했고, 대신 스로인을 하는 현실적인 지점에서 상대 선수를 2m 떨어지게 함으로써 스로인하는 선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규칙이 변했습니다.

더불어 스로인한 볼이 지면 또는 공중을 막론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면 인플레이가 된 것이므로, 아무런 터치 없이 경기장을 벗어났다면 스로인 권한은 상대 팀에게 넘어갑니다. 볼이 나간 지점에서 상대 팀의 스로인으로 재개합니다.

Q 2 얼마 전 해외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막는 수비 팀의 골키퍼가 킥 순간 한쪽 발은 골라인 뒤, 한쪽 발은 골라인 앞에 있는 상태에서 전진해 킥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페널티킥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페널티킥을 하는 순간 골키퍼는 최소 한 발이 골라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라인 앞이 아니고 볼보다 더 멀리 있는 골라인 뒤에 발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페널티킥은 득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언제나 관심이 높지요. 페널티마크의 중심에서 골라인 뒤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11m이며, 페널티킥을 할 때 골키퍼는 최소한 한 발이 골라인에 닿아 있거나 골라인 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질문의 상황은 골키퍼가 규칙을 위반한 것이 확실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기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반칙으로 결정하는 상황은 규칙을 위반한 선수 또는 팀이 이득을 가졌을 때 반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키퍼의 두 발이 골라인을 벗어나 볼 쪽으로 나가는 것은 키커에게 불리하고 골키퍼에게 유리한 상황이니 허용할 수 없지요. 그런데 골키퍼가 자신의 발을 골라인 뒤에 두면서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든 것을 굳이 반칙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 규칙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kwontj@kfa.or.kr로 문의해주세요.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축구영어(김준영 지음)> 정리 권태정 사진 FАphotos

기회는 있다

영글

경기나 리그 순위에서 뒤쳐져 있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해.

지연

맞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나 기회는 있으니까!

영글

‘여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를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지연

We still have a chance to win!

영글

좋아. 또 다른 표현을 알려줄게.



축구만큼 글로벌(global : 세계적인)한 스포츠는 없다. 축구를 통해 배우는 영어회화로 글로벌한 축구인이 돼보자. <한 권으로 읽는 축구영어>에서 유용한 표현을 엄선했다.

be in with a shout은 ‘이길 가능성이 있다/크다’, ‘좋은 기회가 있다’ 등을 말하고자 할 때 쓰기 좋은 표현이다. shout 뒤에 of 전치사구를 삽입하면 의미 전달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전치사가 많아 쉽게 와 닿지 않겠지만 숙어처럼 외워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be up for grabs**가 있다. 무언가를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기 좋은 표현이다.



예문 01

Do you still see Manchester United still **being in with a shout** of a top-two finish? 당신은 여전히 맨체스터유나이티드가 2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문 02

After both Manchester City and Liverpool lost, Tottenham's chance of finishing runners-up in the Premier League **is up for grabs**. 맨체스터시티와 리버풀이 모두 패함에 따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를 2위로 마칠 가능성이 생겼다.

영원히 퇴장당하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축구 인생은 없습니다.



승부
조작

성희롱
성폭력

폭력
폭언

금품
수수



대한축구협회 KFA 신문고센터

· 사이트 : www.kfa.or.kr

스포츠 윤리센터

· 사이트 : www.k-sec.or.kr · 전화 : 1670-2876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대한축구협회